

2000-3-2

9 page

사회 환경 교육의 중요성

박영숙 한국 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전국의 여성 환경인들이 주로 주선한 여성 환경연대에서는 지난 2월 25일 <환경보호를 위한 도시환경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최근 악영향이 우려되는 산물의 호우에서 허용된 30%의 다이옥신이 검출되고 그리고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은 대부분 관련 물질로 인한 부담을 일반의 기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 발표에 대한 충격에 대한 반박을 요청하는 바이다.

앞서 말한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의 실행과정을 검토하여 정부의 정책의 실행과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보고에 대해 납득들이 크게 문제 삼고 있다. 이번에도 여러 사람들의 정당한 지적과 주선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여성들이 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실 것 같다.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의 실행과정을 검토하여 정부의 정책의 실행과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보고에 대해 납득들이 크게 문제 삼고 있다. 이번에도 여러 사람들의 정당한 지적과 주선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여성들이 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실 것 같다.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의 실행과정을 검토하여 정부의 정책의 실행과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보고에 대해 납득들이 크게 문제 삼고 있다. 이번에도 여러 사람들의 정당한 지적과 주선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여성들이 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실 것 같다.

아무리 무서운 현상이 우리의 삶 가까이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이 반드시 그 심각성에 대처하기 못하고 있는 것은 모든 면에서 비롯되고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1996년 말에 실시한 <서울시민의 환경에 대한 의식과 실천>에 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95.5%의 서울 시민이 환경보호에 적극적이다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생활습관 변화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때문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환경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 시민의 87.7%가 환경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환경 교육에 투입하고 있는 것은 교육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 환경 교육의 내용은 환경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환경 파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동시에 환경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1인 3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는 이제껏 2+2=5가 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지금도 5-2=3이 되는 사회라고 한다. 그러므로 배양이 이 사회도 위생적이 되고 사회라는 것이다. 이쯤에서 손을 떼고 관리를 해야 하는 부근에 있는 이 사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배양이 이 사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사회가 이제부터 국민 정책의 정책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해 한다. 그러나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2+2=4이 아니라 2+2=5가 되는 사회에서 비롯되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해 한다.

사회 환경 교육의 중요성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전국의 여성 환경인들로 구성된 여성환경연대에서는 지난 2월 25일 <환경호르몬과 모자건강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최근 식약청이 우리나라 산모의 초유에서 허용치 30배의 다이옥신이 검출되고 그리고 환경호르몬으로 불리는 내분비교란물질로 인한 유방암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 발표에 따른 발빠른 움직임이었다.

환경호르몬으로 작용하는 물질중의 하나인 다이옥신은 인류가 만든 화학물질 중 최악의 독물로 꼽힌다. 그 독성은 청산가리보다 1천배나 강한 것으로 1g로 50kg의 몸무게의 사람 2만명을 죽일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환경호르몬에 대한 과학의 심판은 점차 명확해지겠지만 이미 정자수의 감소, 불임증, 생식기 이상, 유방암, 어린이들의 신경장애 등을 일으킨다고 해서 환경호르몬은 인류의 미래를 도둑질한 물질로 지목받고 있다.

이렇게 무서운 물질이 우리의 삶 가까이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음에도 보도에 접할 때마다 일시적인 충격을 받을 뿐 그 심각성에 바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실상을 모르는데서 비롯된다고 보아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1996년 말에 실시한 <서울시민의 환경에 대한 의식과 실천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95.5%의 서울시민이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생활실천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환경교육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시민의 87.7%가 환경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서 입증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환경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정부예산을 환경교육에 투입하고 있는 것은 교육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사회환경교육의 내용은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환경파괴에 대한 가해자이고 피해자인 동시에 감시자이다. 환경교육은 사회의 개개인이 1인 3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사회는 정보지식사회인 네트사회이다. 네트사회는 얼마전까지 $2+2=5$ 가 되는 사회라고 했으나 지금은 $5-2=7$ 이 되는 사회라고 한다. 개미와 베짦이의 우화를 뒤바꾸어 놓은 사회라는 것이다. 여름철 좋은 곳을 골라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다가 음반이 나와서 떼돈을 벌고 개미는 열심히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베짦이에게 구걸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이성의 논리가 기업의 국가 경쟁력의 결정요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업무는 $2+2=4$ 라는 철저한 이성의 논리에 근거하지 않고서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데서 환경교육이 필요하고 철저한 실천이 요구된다.